

홈 > 뉴스 > 기획 > 제주비경, 전설을 이야기하다

(21)오름 정상에서면 숨은 진주 산정호수가 눈 앞에

물영아리오름...생태계의 보고 람사르 습지로 지정 보호

데스크승인 2015.06.05 조문욱 기자 | mwcho@jejunews.com



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물영아리오름은 도내 오름 중 몇 안 되는 산정호수를 낀 오름으로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며 생태계 보고로써 람사르습지으로도 지정·보호되고 있다. 물영아리오름의 정상에 있는 산정호수

제주에 있는 370여 개의 오름들은 저마다 사철 자신만의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분화구에 물을 품은 산정호수가 있는 오름은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.

산정호수가 있는 오름은 물장오리, 물чат오름, 서영아리오름, 물영아리오름 등 몇 안된다. 이들 중 물장오리와 물чат오름은 천연기념물 지정 및 오름 생태계 보호 이유로 현재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이다.

안덕면 중산간에 위치한 서영아리는 출입제한 구역은 아니지만 한라산 깊은 곳에 자리한 데다 정

식 등반로가 없어 찾기가 쉽지 않다.

반면 남원읍 수망리의 물영아리오름은 2007년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국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는데도 출입제한이 없고 등반로가 잘 조성돼 있어 누구나 쉽게 찾아 오름과 오름이 품은 산정호수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.

▲생태계의 보고

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물영아리오름은 특이한 오름이다. 정상부 습지는 2000년 전국서 최초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람사르 습지로 지정, 보호되고 있다.

오름을 오르기 위해 차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넓은 면적에 노랑계 피어난 개민들레꽃이 탐방객을 반긴다. 민들레밭을 지나면 드넓은 목장지대가 펼쳐져 있어 보기만 해도 가슴이 확 트인다. 목장 가장자리로 오름 입구까지 목재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다.

또한 오름 입구부터 정상을 넘어 산정호수까지도 목재 계단이 설치돼 있어 편하게 경치를 즐길 수 있다. 그러나 820여 개의 계단을 오르며 중력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숨이 '헉헉' 차오르기도 한다.

이럴 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과 귀의 신경을 집중시켜보자. 계단 주위에 같은 듯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새우란이 지천에 널려 있어 눈을 즐겁게 하고, 온갖 새들의 지저김이 귀를 즐겁게 하며 지친 몸에 힘을 실어 준다.

이렇게 걷다보면 어느새 정상 산정호수에 다다른다. 둘레가 약 1km에 깊이가 40m에 이르는 산정호수 습지에는 멸종위기종 2급인 물장군, 맹꽁이 물여귀 등 210종의 습지식물과 47종의 곤충, 8종의 양서류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.

특히 이곳은 습지여서 독사와 유혈목이가 많아 지정 등반로 이외의 곳으로의 진입은 절대 금물이다.

▲산정호수의 탄생 전설

옛날 들판에 방목 소를 잃어버린 젊은이가 소를 찾아 헤매다 이 오름 정상에 올랐을 때 목도 마르고 기진맥진해 쓰러지고 말았다. 그 때 젊은이의 꿈에 한 백발노인이 나타났다. 노인은 “너무 상심 말거라. 내가 그 소 값으로 이 산 꼭대기에 큰 못을 만들어 줄테니 너는 부지런히 소를 키우면 살림이 궁색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

청년이 눈을 떠보니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. 이어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듯 굉음이 들리고 청년은 그 자리서 혼절하고 말았다.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청년은 정신을 차렸다. 날씨는 화창하게 맑고 자신이 쓰러졌던 정상부에는 크게 움푹 패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출렁이고 있었다.

그 후 그 물을 마르기 않고 소들은 오름 주변에 물이 없으며 오름 꼭대기로 올라와 물을 마셨다고 전해지고 있다.

물영아리오름만 오르는 것이 아쉽다면 '물보라길'로 이름 붙여진 약 4km 구간의 오름 둘레길을 걷는 것도 좋다. '푸른목장 초원길', '소몰이길', '잣성길', '삼나무숲길', '자연하천길' 등으로 구분된 둘레길에서 물영아리오름의 또 다른 멋과 수망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다.

게다가 물영아리오름 주위는 영화 '늑대소년'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이 곳을 찾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. 특히 지난 5월에 제주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3일에도 비가 내려 물영아리오름 속의 숨은 진주인 산정호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. 조문욱 기자

mwcho@jejunews.com

© 제주신보(<http://www.jeju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